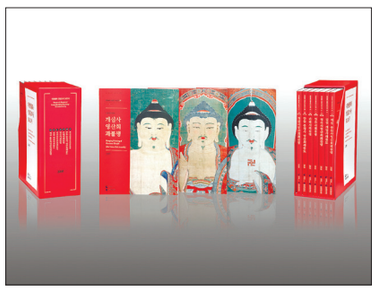
국보 · 보물 괘불탱 원형 살피다

성보문화재硏 · 문화재청, '대형불화 조사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곡사 · 법주사 등 7점 조사해
원형 자료 · 세부 도판 등 망라
분광분석 통해 염색재료 분석
올해엔 칠장사 괘불탱 등 조사

국보 · 보물급 괘불탱을 과학적으로 정밀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5년부터 10개년간의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7건의 대형불화를 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불화, 일명 괘불탱은 야외에서 봉행되는 영산재(靈山齋), 수륙재(水陸齋)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다. 10여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 · 무형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성보문화재다.

하지만 괘불탱은 궤에 넣어 보관하는 특성상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보수 · 보존으로 2차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한 원형 기록은 필수다.

이 같은 이유로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에는 조계종 총무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 제302호) △법주사 괘불탱(보물 제1259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4호) △은해사 괘불탱(보물 제1270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제1642호) △김천 계림사 괘불도(비지정) 등 총 7건의 대형불화를 조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7건의 대형불화를 정밀 실측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채색 정보, 세부 도판, 관련 유물 등에 대한 원형 자료 및 보존 현황 정보 등 종합 조사 결과를 담아냈다.

특히 자외선-가시광선 반사 분광 분석을 이용한 염색 재료 분석, 보존 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조사, 채색 기법 연구를 통한 제작 방법과 전통 안료(물감) 사용 방식 검증 등 새롭게 시도한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수록했다.



보물 제1270호 은해사 괘불탱. 조사를 통해 바탕재가 18세기 괘불탱 중 유일하게 56.6~67.2㎝ 넓이의 특수 비단인 '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괘불탱 재료와 안료 등을 확인한 것은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실제 조사를 통해 보물 제1270호 은해사 괘불탱의 바탕재가 18세기 괘불탱 중 유일하게 56.6~67.2㎝ 넓이의 특수 비단인 '초(綃)'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초'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가늘고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실로 제직한 평직의 비단 직물로 치밀하지 않게 제직해 직물이 얇고 투명하다. 고려 · 조선시대에는 복식뿐만 아니라 회화의 바탕재로 사용됐다.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에서 화면 장식을 위해 은박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보물 제1259호 법주사 괘불탱에 남아 있는 유소(流蘇, 깃발이나 가마 등에 갖가지 실로 매듭짓고 꼬아서 다는 장식)로 괘불탱 장황의 장식사례가 새롭게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대형불화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복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보문화재연구원과 함께 2015년부터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일반 공개를 통해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국보 제296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등 7건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재료 전문기관 건립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본격화

문화재 수리 재료를 전문적으로 수급하는 국가 기관이 건립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봉화군 풍정리에 이달부터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본격 시작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문화재 수리용 재료를 국가가 직접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는 문화재 수리 재료 전문 기관이다. 센터는 국내 시장에서는 구매가 어려워 현재는 외국산 수입목으로 대체되거나 공사단가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거래되는 품목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문화재 수리 공사는 재료 선정과 품질 관리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재료 수급 전문기관의 설립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특대재 소나무의 경우 내부 심재까지 건조가 어렵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3년 이상 건조할 경우 강도와 내구성이 좋고, 잘 썩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목재 보관에 따른 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로 현재는 사실상 시장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문화재수리용 소나무 공급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부지로 경상북도 봉화군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배치도

봉화군 풍정리에 이달부터
특대재 松 수급 · 공급 계획
오는 2023년 12월까지 건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특대재 소나무와 같이 수급이 어려운 재료를 보관 · 처리하는 시설로 구성된다. 경북 봉화군 풍정리 247번지 일대에 세워지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대지면적 약 210,000㎡, 연면적 9,900㎡ 규모로 설립된다.

센터는 재료연구동과 운영시설, 공영공간으로 구성되며, 핵심 시설인 재료연구동에는 △목재보관소 △전처리실 △치목장 △부재보관소 △재료실험실 등이 들어선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5개년간 시행하게 되며,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됐다. 이달부터 2021년 6월까지 56억 원을 투입해 기본 ·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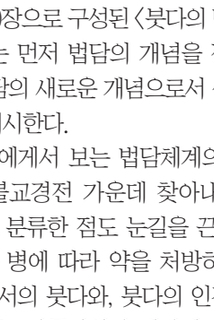
이번 건립사업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협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 중 군 관리계획 수립, 토지매입, 주변 연결 도로의 확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센터가 건립되면 제재된 목재 기준 지름 45㎝ 이상의 국내산 소나무,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형 소나무, 강이나 산에서 수집되는 자연산 막돌 등 문화재 수리시장에서 수급이 어려워진 재료들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주목! 학술서
이광준의 〈붓다의 법담학 연구〉

붓다가 설한 '법담' 新 이론체계 정립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다. 불교 역시 이를 도입해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한다. 이 같은 학문체계는 서구 심리학과 상담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됐다.

선심리학을 연구해 온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이 최근 내놓은 연구서인 〈붓다의 법담학 연구〉는 불교상담학의 이론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 원론적으로 다시 재정립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다. 그 원천은 경전에서 붓다가 설한 '법담(法談)'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붓다의 법담학 연구〉는 먼저 법담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담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심리법담을 제시한다.

붓다에게서 보는 법담체계의 전형들을 불교경전 가운데 찾아내서 정리하고 분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의왕으로서의 붓다와, 붓다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사무량심과 대자대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도와 연기, 불성의 개발을 탐구하면서 붓다의 구제사상과 법담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붓다의 법담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하고 있는데, 이해 능력과 수준에 대응해 법담을 한다는 뜻인 '대기법담'과 단계별로 설법하는 '차제법담', 훈계하고 이끌어 가르치는 '교계법담(教誡法談)'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붓다의 법담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불교의 심리치료 방법에 대해 고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좌선요법, 위력요법, 염력요법, 광명요법 등 불교의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한다.

저자인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불교경전 중 존재하는 심리학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인 '불교법담학'"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중생구제론이자 치료심리학의 진면목을 보여줄 학문분야"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